

“군산형 일자리 출범 ‘환영’ ”

전북상협, “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 겪고 있는 전북도민들에 큰 희소식... 전기차 생산기지 성장 성원”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군산형 일자리 출범을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전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는 24일 군산시 오식도동 (주)명신 군산공장에서 진행된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 대해 그동안 전북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한국지

엠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전북도민들에게는 큰 희소식이라며, 이번 군산형 일자리 출범을 계기로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전기차 생산 전진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군산형일자리 상생협약은 대기업 의존적 구조에서 벗어나 장래가 촉망되는 우수한 중견기업 4곳과 부품업체 5곳이 협업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값진 성과를 일궈낸 자치단체와 정치권 등 모든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사를 전했다. 이선홍 전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이번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이 전북경제의 터닝포인트가 되어

그동안 침체되었던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 모델의 새로운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회장은 군산형 일자리가 출범 이후에도 지역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의 꾸준한 관심과 충분한 예산지원을 요청했으며, 이와 더불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빠른 시일내에 재가동되어 전북경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 UNGC

한국협회 LEAD 회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24일 지속가능한 연금과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안정된 생활보장에 기여함으로써 지속발전가능 노력을 인정받아 ‘유엔글로벌compact(UNGC) 한국협회’의 LEAD 회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 날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2019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2019 UNGC Korea Leaders Summit)’에서 LEAD 회원으로 위촉받았으며, 앞으로 2년간 UNGC 한국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에 UNGC의 가치 확산 및 지속가능성 의제 수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이 날 행사에서 공단은 인권경영사례 발표를 통해 인권경영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공단의 노력을 널리 알렸다.

김성주 이사장은 “그동안 공단이 공공기관 인권경영을 선도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경진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북도내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이 손을 잡았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24일 경진원을 비롯하여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 전북마을기업협의회, 전북지역협업협의회, 전북지방조달청, 전북KOTRA지원단, 무역보협공사 전북지사 등 8개 기관이 ‘전북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지역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지원사업의 칸막이를 없애고 사업간 연계를 통해 연속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준비단계부터 기업의 역량에 맞게 지원기관의 서비스를 통합, 지원사업을 패키지화(화)하여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이다. /김윤상 기자

중기 리더스포럼 출신원

중기사랑나눔재단에 성금 전달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김영래)은 올해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골프대회에서 출신원을 한 전북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임선명 이사장과 강원도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최돈진 이사장이 지난 23일 재단을 방문해 각 1000만원씩 성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으로부 터 출신원패를 수상한 임선명 이사장과 최돈진 이사장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각 성금 1000만원을 전달하며 “출신원패의 행운을 소외계층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녀를 대상으로 희망드림장학생을 매년 선발해 꿈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이 농업·농촌의 가치 전파를 위해 마련한 초등학교 스쿨팜에서, 도내 3000여명의 학생들이 전통방식의 벼 수확체험에 참여하여 벼도 수확하고 더불어 소중한 생명의 가치와 협동의 정신을 배우고 있다.

전통방식의 벼 수확 체험 ‘재미있었어요’

전북농협, 도내 3000여명 학생 초등학교 스쿨팜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이 농업·농촌의 가치 전파를 위해 마련한 초등학교 스쿨팜에서, 도내 3000여명의 학생들이 전통방식의 벼 수확체험에 참여하여 벼도 수확하고 더불어 소중한 생명의 가치와 협동의 정신을 배우고 있다. 초등학교생들은 지난 5개월 동안 학교 내에 마련된 텃밭에서 서늘하지만 직접 모내기를 했으며 정성껏 비를 관리해 왔다. 이번 수확체험에서는 낫으로 벼 베기, 지게로 나락 나르기,

호룽기와 흘대를 이용한 탈곡 등을 통해 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하고 있다. 지난 15일 전주 흥산초에서 시작하여 31일 익산 가운초를 마지막으로 15일간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팍팍 재미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협동의 가치를 배우는 체험형태의 현장교육이다. 스쿨팜(School Farm)은 학교와 농장의 합성어로 학교 내 유휴 부지인 화단 또는 잔여 공간에 밭을 조성한 후

학생들이 주 1회 수업시간에 꼬마농부가 되어 농사 관련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전주·군산·익산 등 전라북도 3개시와 전북농협이 협력하여 도내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유재도 본부장은 “조그만 쌀 한 톨이 만들어 지는 과정을 통해 수천 년 이어온 인류 문명의 근본인 농업의 소중함을 배웠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 농업을 통해 학생에게 생명의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치유형 농촌관광’으로 지친 몸에 ‘활력’

농촌진흥청, 프로그램 현장 시연 결과 발표

참여자 대부분 긍정적 반응... 스트레스 완화도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에서 개발한 치유형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한 결과,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 치유형 농촌관광은 농촌에서 치유적 요소가 있는 관광과 체험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심신 회복과 건강 증진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15일과 16일, 22일 총 3일간 고창에서 시연됐다. 농촌진흥청은 뛰어난 자연생태자원과 가까운 곳에 체험마을이 있고 고창 운곡습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프로그램 구성은 ▲교류치유형=농촌 문화를 경험하고 지역 주민과의 교류로 정서적 안정을 찾고

마음을 치유 ▲휴식치유형=자연 속에서 명상, 산책 등으로 심신을 재충전 ▲운동치유형=농촌의 야외공간에서 맨손체조, 트레킹 등으로 짜여있었다. 현장 시연 결과, 참여자 대부분은 ‘자연경관에서 운동을 하면서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다. 몸과 마음에 활력이 생겼다’,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라 생각했다. 이런 치유형 농촌관광이 더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 ‘일상에서 벗어나 피로를 풀고 생각을 비울 수 있었다’, ‘행복이수가 높아졌다’, ‘자연 속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 겹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윤상 기자

생진원 한우수출연구사업단, 우육 수출 확대 QR코드 개발

전북생물산업진흥원 한우수출연구사업단(단장 이승제)과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24일 ‘한우고기 해외 수출 활성화 및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한 한우고기기의 이력정보를 해외에서 활용하기 위한 정보·기술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밝혔다. 한우수출연구사업단 이승제 단장은 “그간 한우고기 해외수출 과정에서 해외바이어, 호텔 한우 셰프 등이 한우고기의 영문이력정보를 확인하고

공유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협업의 한우고기의 영문이력정보 활용률을 높이면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QR code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든 한우고기의 이력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축평원 또한 한우수출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공감함을 표시했으며, 축평원에서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영문이력정보와 표준번호도 정보를 제공하는 등 QR code를 개발하는



데 다양한 정보 및 기술지원에 협력을 약속했다. /김윤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KBS 열린음악회’ 전주에 온다

전북은행, 창립 50주년 기념해 개최 한영애·왁스 등 국내 수준급 가수 출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전북도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함은 물론 소외계층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 실천, 서민금융 지원을 통한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의 실현 등으로 50년을 넘어 100년 은행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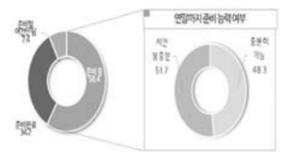
겠다”고 전했다. 한편, ‘KBS 열린음악회’ 티켓은 전북은행 전 영업점에서 선착순 배부하고 있으며,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홈페이지(www.jbbank.co.kr) 및 콜센터(☎1588-4477)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중기 10명중 6명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준비 안돼”

중기 58.4%가 “시행유예 필요, 유연근무제 보완도 시급”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준비가 안되어 시행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 도입을 앞두고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조사대상 : 중소기업 500개사, 조사기간 : ‘19. 10. 8 ~ 10. 14)’를 실시하고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준비 상태에 대해 ‘준비 중’이 58.4%, ‘준비할 여건이 안됨’을 7.4%로 응답하였으며, ‘준비 중’이라 응답한 업체가 연말까지 준비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시간불충분’이 51.7%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58.4%가 주52시간 시행시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시행유예 필요 기간으로는 ‘1년’이 52.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3년 이상’(27.4%), ‘2년’(19.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 중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11.8%로 조사되었으며, 중소기업이 사용 중인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81.4%), 선택적 근로시간제(18.6%), 재량 근로시간제(8.5%) 순으로 확인됐다. 주 52시간 시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간주(82.7%)가 가장 높았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신건강 및 요건 개선’(24.2%),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12.1%) 순으로 나타났다. /김윤상 기자

〈주52시간 근로 단축 따른 준비 여부〉



〈단위: %〉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근로자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상승’(70.4%)을 가장 많이 예상했으며, 다음으로 ‘구인난 등 인력 부족’(34.4%), ‘조업일수 단축 및 생산차질’(33.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은 주52시간 시행을 위한 ‘인간 연장근로’ 허용사유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에 78.8%, ‘필요하지 않다’는 21.2%로 응답했다. 일본과 같은 노사합의 시 추가 연장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39.8%, ‘반대’가 10.4%로 조사되었다. 한편, 중소기업에서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연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59시간’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서는 ‘업무특성에 따른 불규칙적 업무 발생’(56.0%)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업무특성상 설비 작동 중 중단 불가’(36.0%), ‘숙련인력 등 대체인력 채용 어려움’(20.9%), ‘구인난’(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윤상 기자

전북중기청,기업 채용박람회 성료

2019 전북 중소기업 채용박람회가 2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우수 인재를 채용하려는 도내 기업 32개사와 250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취업에 대한 열기를 고조시켰다. 행사에 참가한 한 구직자는 “한 장소에서 여러 업체의 면접을 볼 수 있고, 면접관으로부터 관심 분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조언까지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만족했다. 행사장은 기업 채용면접관과 부대행사관으로 구성됐으며, 부대행사관으로

는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직업 선호도검사, 취업상담, 이력서 사진촬영, 이미지메이킹, AI면접 체험, 4차산업 직업체험관의 드론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박람회 참여 기업들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부터 면접까지 원스톱 구인활동을 진행했으며 기업들은 앞으로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재 청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우수기업이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